

화 답 송

(연중 제24주일, 나해)

(2018. 9. 16.)

시편 116(114-115), 1-2.3-4.5-6.8-9(© 9)

(후렴)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-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-

1. 나는 주님을 사랑하네. 애원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.
 2.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에우고, 저승의 공포가 나를 덮쳐,
 3.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,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.
 4. 당신은 죽음에서 제 목숨을 구하셨나이다. 제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
 제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.

1. 당신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, 나는 한 평생 그분을 부르리라.
 2. 고난과 근심에 사로잡혔네. 나는 주님 이름 불렀네 "주님, 부디 이 목숨 살려주소서."
 3.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, 가엾은 나를 구해 주셨네.
 4.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.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.